



호텔 서울드래곤시티, 로스트 미트 정찬 '어텀 테이스트' /호텔 서울드래곤시티

파티요리부터 면역력까지 호텔서 만나는 가을 미식회

서울드래곤시티
양갈비·오리 메인 패키지 2종

롯데호텔 서울
간장계장 등 시즌 한정 보양식

풍요로운 계절, 가을을 맞아 각 호텔 레스토랑은 개성 있는 미식회를 마련했다. 지난 여름 성수기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 유래없는 사업성 악화를 경험한 호텔 업계는 보유한 레스토랑 메뉴부터 다채롭게 개편하며 손님 불려모을 준비를 하고 있다.

먼저 서울드래곤시티가 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도록 구성한 '어텀 테이스트(Autumn Taste)' 프로모션을 선보인다고 13일 전했다. 모던 프렌치 비스트로 알라메종 와인 앤 다인(A La Maison Wine & Dine)에서 준비한 이 프로모션은 양갈비 프렌치랙 구이와 한 마리를 통째로 구운 오리 구이를 메인 요리로 하는 풍성한 패키지 2종이다. 패키지는 메인 메뉴와 다양한 요리가 한상 가득 구성돼 마치 파티에 온 것 같은 분위기를 낼 수 있다.

2~3인에 적합한 '양갈비 구이 패키지'는 ▲월도프 샐러드 ▲라파두이 ▲감자 그라탕 ▲양갈비 구이 ▲메종 티라미수 등으로 구성됐고, 3~4인용으로 마련된 '오리 구이 패키지'는 ▲월도프

샐러드 ▲볶은 에그누들 ▲통오리 구이 ▲메종 티라미수 등이 함께 제공된다.

특급호텔 셰프의 로스트 미트 정찬을 맛볼 수 있는 어텀 테이스트는 다음달 11월 15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되며, 서울드래곤시티 투숙객은 1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 가능하다.

한편 면역력이 떨어지는 환절기, 롯데호텔 서울에서는 지난주부터 건강은 물론 먹는 재미와 보는 재미까지 챙길 수 있는 시즌 한정 보양식을 내놨다. 국내 특급호텔 한식당 중 가장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롯데호텔 서울 무궁화에서 가을철 최고의 밥도둑 '간장계장'을 준비한 것이다.

무궁화간장계장은 서해안산날배기 제철 꽃게에 면역력 증진에 좋은 표고버섯, 혈액순환 촉진과 배탈 예방에 효과적인 생강의 말린 뿌리줄기 등 15가지의 한약재와 채소, 과일 등을 배합한 특제 간장으로 맛에 웰빙을 더한다.

국내 중식당으로는 유일하게 지난해 세계 최고의 레스토랑 1000곳을 가리는 '라 리스트 2020'에 선정됐던 도림에서는 불도장(30가지 이상의 재료가 들어간 중국대표 보양 음식)이 포함된 '셰프 추천 어텀 스페셜 코스(Autumn Special Course)'를 맛볼 수 있다.

/원은미 기자 silverbeauty@

SK바이오팜, 5000억 기술수출 계약 체결

오노약품공업과 전략적 제휴

SK바이오팜은 뇌전증 신약 세노바메이트의 일본 내 개발 및 상업화를 위해 오노약품공업과 기술수출 계약을 통한 전략적 제휴를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5000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세노바메이트는 SK바이오팜이 독자 개발해 2019년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처(FDA)로부터 승인을 받은 성인 대상 부분 발작 치료제다.

이번 계약으로 SK바이오팜은 선 계약금 50억엔(한화 약 545억원), 허가 및 상업화 달성에 따른 기술료(마일스톤) 481억엔(한화 약 5243억원)을 비롯해 매출액의 두 자릿수 퍼센트에 해당하는 로열티를 받게 된다.

SK바이오팜은 최근 아시아 3개국(일본, 중국, 한국)에서 세노바메이트

의 대규모 임상 3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일본 시장의 경우 임상 3상은 SK바이오팜이 수행하고, 향후 개발 및 제품 허가에 대해서는 양사가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이번 계약으로 SK바이오팜은 오노약품공업과 상업화를 공동으로 진행할 수 있는 코프프로션 옵션 권리도 확보했다. 오노약품공업은 일본 오사카에 본사가 위치한 R&D 중심 제약기업으로, 항암·면역·신경계 등 의학적 미충족 수요가 높은 질환에 대한 혁신신약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SK바이오팜 조정우 대표는 "이번 계약은 SK바이오팜의 입지를 아시아 최대 제약시장 중 하나인 일본으로 확장함과 동시에 혁신신약을 통해 일본 뇌전증 환자들에게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전례없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셀트리온헬스케어, 항암제 시장 확대

허쥬마·트룩시마, 브라질 공급 계약

브라질 정부 니즈 충족 전략 수립
현지 인력 확충 등 마케팅 강화
"바이오시밀러 리딩 포지션 구축"

셀트리온헬스케어가 브라질에서 항암제 시장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이달 들어 중남미 최대 바이오제약 시장인 브라질에서 '허쥬마' (성분명 트라스투주맙)와 '트룩시마' (성분명 리룩시맙) 수주에 잇따라 성공했다고 13일 밝혔다.

브라질은 중남미 바이오제약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국가이다. 최근 브라질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의료 재정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바이오시밀러 도입을 적극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브라질 정부의 변화에 주목한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정부와 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는 등 적극적으로 시장에 대응하고 있다.

그 결과 셀트리온헬스케어의 허쥬마가 다수의 글로벌 제약사들이 참여한 브라질 최대 규모의 트라스투주맙



허쥬마(좌), 트룩시마(우)



/셀트리온헬스케어

연방정부 입찰에서 경쟁사들을 제치고 수주에 성공했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계약에 따라 향후 1년 간 브라질 트라스투주맙 시장의 약 40%에 해당하는 공공시장에 허쥬마를 공급할 예정이다.

트룩시마 역시 지난 주에 브라질 주 정부 입찰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상아울루 입찰에서 수주에 성공하며 올해 들어 총 6개 주 정부 입찰에 승리하면서 성공적인 브라질 시장 확대를 이어가고 있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허쥬마, 트룩시마 수주를 통해 브라질 내 항암제 포트폴리오를 강화한 만큼 지속적인 처방 확대를 목표로 현지 인력을 확충하는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공격적인 마케팅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셀트리온헬스케어 관계자는 "그 동안 좋은 성과를 나타냈던 유럽, 미국에 이어 최근에는 중남미, 아시아 등 바이오의약품 성장시장에서도 입찰 수주 및 의약품 처방 확대가 지속되면서 이들 지역에서도 바이오시밀러 리딩 포지션을 공고히 구축해 나가고 있다"면서 "앞으로 '렙시마SC' 유럽 출시국 확대 및 주요 3개 제품 글로벌 직판 확대 등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미래 성장동력이 지속되는 만큼 이를 발판 삼아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이대목동병원, AI활용 심정지 중환자 신경예후 조기 예측

이정화 교수 뇌영상 분석 연구

중환자의학회 학술대회 우수 초록상

이대목동병원 신경과 이정화 교수가 인공지능을 활용해 심정지 중환자의 신경학적 예후를 예측하는 연구로, 최근 대한중환자의학회가 주관하는 학술대회에서 우수 초록상을 수상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뇌영상 분석 알고리즘을 통해 신경학적 예후를 예측하는 연구는 세계 최초이다.

이 교수는 '심정지 이후 환자의 인공지능 뇌영상 분석 알고리즘을 통한 신경학적 예후 예측'이라는 제목의 연구를 진행했다. 이 교수는 서울대 의료정보학 인종의 과정을 마치는 등 중환자의 생체신호와 복합적 정보 같은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연구에 앞장서고 있다.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심정지 환자의



이대목동병원 신경과 이정화 교수

95%가 사망한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사망위험이 높다. 만약 생존하더라도 심정지 후에는 뇌손상, 심근 기능 부전, 전신의 허혈-재관류 손상 등 중후군이 심각하다.

이 교수는 "심정지 중환자의 신경학

적인 예후를 조기에 정확히 예측한다면 환자 치료와 임상적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판단, 저체온요법을 실시한 심정지 이후 환자를 대상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해 뇌 영상을 분석했다.

그 결과,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예측 정확도는 88%에 달했고, 음성을 양성으로 잘못 파악하는 비율(위양성율)은 0에 수렴하는 등 다른 예측 방법보다 매우 신속하고 정확한 예측능력을 보였다.

이 교수는 "신경계 예후 예측은 아무리 의사여도 육안으로 판정하는데 한계가 있어 신속한 자료 분석과 예측능력이 뛰어난 인공지능을 활용했다"며 "중환자의 돌발 사망이나 감염 전파를 예측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 개발 등에 앞장서 중환자 의학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세경 기자

CJ푸드빌, '빽스 암 딜리버리' 지역 확대

강동·마포 등 서울 9개구 확장

CJ푸드빌이 운영하는 빽스가 배달 전용 브랜드 '빽스 암 딜리버리' 서비스 지역을 넓히며 배달 서비스 강화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CJ푸드빌은 서초, 강남 지역에서 선보였던 '빽스 암 딜리버리' 서비스를 서울 9개구(강남, 강동, 강서, 동작, 마포, 서대문, 서초, 성북, 송파)와 수도권 일부(인천 계양, 일산 동구)로 확장했다. 빽스는 가족외식 및 직장인 회식 등 특별식 니즈가 높은 상권을 중심으



빽스 암 딜리버리

/CJ푸드빌

로 서비스 지역을 지속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조효정 기자 princess@

본도시락·동아제약

'바삭 Cheer-Up' 프로모션

'본도시락'이 동아제약 '박카스'와 함께 배달앱에서 바삭불고기 라인 중 일부 세트 주문 시 박카스를 증정하는 '바삭 Cheer-Up' 프로모션을 전개한다고 13일 밝혔다.

자사 모바일 배달앱 본오더와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을 통해 ▲바삭불고기요징어 한상 ▲바삭불고기닭구이 한상 ▲바삭불고기제육 한상으로 구성된 '바삭 Cheer-up 세트' 중 한 가지를 주문하면, 고객들을 위한 응원 메시지를 담은 박카스를 함께 제공한다.

/조효정 기자